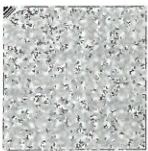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65호
2021년 11월 7일(나해)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 1열왕 17,10-16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 7.9ㄴㄷ-10 7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히브 9,24-28

복음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마르 12,38-44<또는 12,41-44>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사목국장

주님은 우리 삶의 중심

교회 공동체는 매년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의 첫 주일에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위령 성월'과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마음 한구석에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의 시(詩)가 떠오릅니다.

나는 왔누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 시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인간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을 추구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길지 않은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간 한 사제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차동엽 신부는 자신의 저서 「가톨릭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1권」에서 만약 한국의 상황이었다면 둘째 연과 셋째 연 사이에 '나는 일하누나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라고 한 연(聯)을 더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올 한 해는 너무나 분주하게, 아니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안의 말씀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우리는 과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사렙타의 과부는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1열왕 17,14)라고 전하는 예언자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과연 그 말대로 됩니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생각한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내린 것입니다. 한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녀는 렘톤 두 닢, 자신이 가진 모두를 헌금함에 봉헌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전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려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또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번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히브 9,28 참조)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비지 않는 밀가루 단지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티쿠아 프란치스코성당 과테말라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마르 12,44)



참으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주님이 계신 경당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홀로 두는 법이 없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미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보시기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잠시 저를 돌아봅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 쌓이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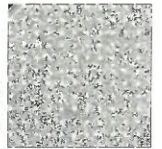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지만, 여전히 부러운 느낌이 드는 대상이 있으니 “모태 신앙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신자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어려선 할머니를 따라 절에도 가봤고 할머니 돌아가신 후론 어머니 따라 점집에도 가본 경험이 있는 평범한 젊은 애였습니다. 그런 제게 가톨릭은 어쩌다 명동성당 앞을 지날 때 새어 나오던 가슴 가득 스며드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 라디오의 좋아하는 클래식 프로에서 즐겨 듣던 아베마리아, 헨델의 메시아 등 모두 긍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자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음도 모두 이 긍정의 힘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얼굴에 세례는 받았어도 기도도 미사 참례도 어느 것 하나 열심히 게 없는, 한마디로 무지몽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는 여정에서 많은 시련과 고비를 겪으며 필사적으로 기도, 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련들이 닥쳐왔습니다. 특히 큰아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날, 수술 도중 수술실에서 나와 들려주시던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 “곧 떠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장보다 무섭고, 무거운 문장을 제 일생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울부짖었던 기도, “처음처럼 제게 도로 주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아 처음처럼 도로 주셨습니다. 말짱하게...

그 이후 묵주기도, 매일미사, 성경 읽기 등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야말로 저 급할 때만 하느님께 매달리고 귀찮게 구는 엉터리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에서의 객지 생활이 외로워 신앙의 벗이 될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사 화살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탈리아가 가톨릭 국가이니 사회 전반



장명숙 안젤라메리치
유튜브 크리에이터 밀라노나



의 모든 문화가 가톨릭에 기반을 두기는 하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성당에서 주님의 배려로 만난 친구의 집안은 유독 신앙심이 깊은, 생활 속에 신앙을 실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떠돌이 난민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신앙인의 품격,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들을 위한 따듯한 배려 등...

어머니가 쓰시던 묵주로 같이 묵주기도를 올리며 친구가 제게 들려주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묵주알을 굴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걸 생각하면 어머니가 너무 그럽고,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지금의 내가 이만큼이라도 온 것 같아.”

아! 그때 느꼈던 부러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쌓여진 기도.

비록 제겐 윗대의 쌓여진 기도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가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제 자식들을 위해 부러워하는 에너지를 오롯이 모아서 기도를 쌓으리라 다짐합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김경선 누실라
양재동성당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중곡종합사회복지관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은 밖에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어딜 가겠어요. 공원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편하게 갈 곳이 있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고독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위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3일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2018년 저희 복지관 인근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50대 여성분을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어서야 집주인이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복지관에 많은 고민거리를 주었고, 특히 홀몸 노인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중장년 또는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고독사 위험이 큰 사회적 고립가구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생활환경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 반 지하, 고시원, 모텔 등을 돌며 복지관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2020년과 2021년 현재까지 약 160명이 넘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만나며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쌓으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먹거리 지원, 경제적 도움도 아

닌 ‘그냥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고립된 삶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 ‘고립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은 이들을 도와드리고자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고시원,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반 지하, 궤환한 여관방에서 나와 ‘밝고 넓은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관계가 쌓인다면 더는 ‘고립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저희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은 결국 고립된 사람들에게 관계를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없이 소중한 ‘공간’을 만드는 데 동행해 주실 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 모어주신 후원금은 전액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 설비, 시설 마련 및 이들이 ‘쉼’과 ‘힐링’, ‘따스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에 쓰여 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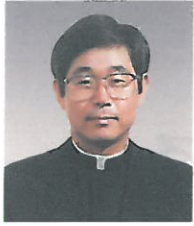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1년 11월 6일~12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 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오늘(11월 7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경갑실(사도요한)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경갑실(사도요한, 72) 신부님께서 지난 10월 28일(목)에 선종 하셨습니다. 경갑실 신부님은 1950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80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홍제동·돈암동성당, 군중, 불광동·일산(현. 의정부교구)·명동·

암사동성당, 관리국(차장), 가톨릭회관(관장) 겸 명동(수석보좌),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사무처장),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사무국장), 관리국장 겸 가톨릭회관(관장), 서대문·중계본동(현. 중계양업)성당, 서울성모병원(원목)에서 사목하시다가 2019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10월 30일(토)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8년 11월 12일 김휘중 요셉 신부(31세)
- 1950년 11월 9일 오연희 마티아 신부(40세)
- 1952년 11월 12일 최문식 베드로 신부(71세)
- 1973년 11월 9일 왕송석 야고보 신부(32세)
- 1987년 11월 14일 조인환 베드로 신부(74세)
- 2004년 11월 8일 김몽은 사도 요한 신부(77세)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서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교구장알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293차 미사 11월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남남 본당, 청진 본당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및 모임 안내

- 1)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11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명동)
신청 문의 및 면담: 02/727-2495
- 2) 유가족 대상별 소모임
대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 이별한 가족
때: 매주(목) 18시30분~20시30분
신청 문의 및 면담: 02/727-2495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이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기억 희망 그리고 축복' 전시회: 전관
전시일정: 11월10일(수)~15일(월)

1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상징의 세계, 마지막 날 이야기-요한 묵시록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문의: 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시교우협의회 창립 25주년 기념 신앙대회(사목국 직장사목팀)

내용: 희년 및 힐링 특강과 이벤트, 장엄미사
대상: 시청 및 자치구와 공사공단 가톨릭직원(퇴직자) 및 가족
때, 곳: 11월13일(토) 13시~17시, 중랑구청 대강당
문의(신청): 02/2094-2232 중랑구청 교우회
유튜브 실시간 방송(https://youtu.be/DZfSBddCpKk)

가톨릭 성음악이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월)~26일(금)까지 / 3개월 수업(12월~2022년 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겨울학기	실기전문: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과정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양상별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1월10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B203호(구.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분과별 사목위원 교육

올해 '분과별 사목위원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2년 사목지침 및 부서별 계획'은 서울대교구 홈페이지(aos.catholic.or.kr) '간행물-사목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직원모집

신정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2601-0103

대상: 신체 건강한 신자(방화 및 가스안전면허 소지자 우대)
근무시간: (월) 휴무, 주 40시간 / 업무: 방호, 미화, 시설관리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서류 전형 및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채용시까지 우편(우 08027,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6길 28 신정동성당 사무실) 및 방문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복동) 세탁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세탁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11월21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심수녀회	11월20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3993-0316 남궁영미 수녀



서울대교구장 임명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10월 28일 오후 7시(로마 시각 낮 12시) 정순택(베드로) 주교(만 60세, 1992년 사제 수품)를 차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겸 평양교구 교구장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구장 임명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우리 교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갈 새 교구장님으로 성령께서 정순택 대주교님을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구에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며 “든든하고 훌륭한 새 교구장님이 우리나라와 교회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길 모든 신자, 수도자, 사제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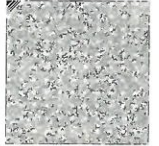
신임 교구장으로 임명된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는 서울대교구장 임명을 받고 “하느님은 그야말로 ‘beyond’이시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넘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계획이나 생각을 우리가 미리 가늠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다.”고 첫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마음이 무겁고 두렵다.”라며 “부족한 제가 훌륭한 전임 교구장님들의 길을 잘 따라 좋은 사목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정 대주교님의 깊은 신앙과 겸손함, 화합과 경청을 중요시하는 인성, 그동안의 사목활동이 임명에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

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대교구가 더욱 영적인 성장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교황님의 바람이 있을 것”이라며 “교황께서 내후년까지 이루어질 시노드에서 변화와 혁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노드 초기 시작부터 새 교구장이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신부는 “정 대주교님은 특별히 젊은이들의 사목에 많은 관심과 비전을 갖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가르멜 수도회 로마 총본부에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부총장으로 일한 경험을 통해 로마 교황청과 긴밀한 소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는 1961년 대구에서 출생, 1984년 서울대학교 공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 편입해 1986년 가르멜회에 입회했습니다. 1992년 7월 16일 가르멜회 인천수도원에서 사제품을 받았고 2000년 로마로 유학을 떠나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Biblicum)에서 성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수도원에서 여러 보직을 거친 후 로마 총본부에선 최고 평의원으로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부총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됐습니다. 2014년 2월 5일 주교품을 받은 후 교구에서는 서서울지역 및 청소년·수도회 담당 교구장 대리를 맡아왔습니다.



1961년 8월 5일	대구 출생
1980년 ~ 1984년	서울대학교 공대 공업화학과
1984년 ~ 1986년	가톨릭대학교(대신학교)
1986년 5월	가르멜 수도회 입회
1992년 1월 25일	가르멜 수도회 종신서원
1992년 6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수료
1992년 7월 16일	사제 수품
1993년 ~ 1996년	가르멜 수도회 수련장
1996년 ~ 1999년	가르멜 수도회 서울 학생수도원 원장 겸 지부 제2참사
2000년 ~ 2004년	교황청립 성서대학(성서학 석사)
2005년 ~ 2008년	가르멜 수도회 인천수도원 부원장 겸 준관구 제1참사
2008년 ~ 2009년	가르멜 수도회 광주 학생 수도원 원장 겸 관구 제1참사
2009년 ~ 2013년	가르멜 수도회 로마 총본부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최고평의원
2013년 12월 30일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 임명(타미주카 명의 주교)
2014년 2월 5일	주교 수품
2014년 2월 18일 ~ 현재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및 수도회 청소년담당 교구장 대리
2014년 10월 30일 ~ 현재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2014년 10월 30일 ~ 현재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위원
2016년 6월 1일 ~ 현재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시복시성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년 1월 1일 ~ 현재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신학위원회 위원
2021년 10월 28일	서울대교구장 대주교에 임명

새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

+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서울대교구에 새 교구장으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보내주시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평화의 사도로 파견된

주님의 일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

또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걷는 여정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저마다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성 요셉님,

● 저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염수정 추기경 인준 2021. 10. 28)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❶ 시노드를 한다고 하는데, 시노드가 뭔가요? 신자들 각 개인에게도 중요한 회의인가요?

교황님께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이하 시노드)를 소집하시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시노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에서도 지난 10월 17일 개막 미사를 기점으로 교구 단계 시노드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시노드가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노드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 생활에 시노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고 계신 분이 교황님과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십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교황님과 주교단이 함께 참석하여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세워온 회의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의회’와 ‘시노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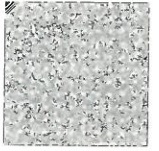
공의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노드(synodus) 역시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지칭하기 위해 오랫동안 함께 쓰여왔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노드 회의 제도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5)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전 세계 주교단이 모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 주교단을 대표하는 대의원 주교들이 참석하여 교황님을 도와 중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드리는 회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확립된 제도입니다. 시노드는 교황님이 제시하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대의원 주교단이 교황님께 자문을 통해 건의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시노드는 총 15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노드는 기존의 시노드 개최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를 통해 기존에 전 세계 대의원 주교단만 참여해 왔던 시노드의 진행 방식을 변경하셨습니다. 우선 시노드를 준비단계, 거행단계, 이행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전문가, 참관인, 형제 대표, 특별 초청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새로 변경된 준비단계에는 특별히 하느님 백성의 협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황님과 주교단의 회의인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 곧 평신도, 사목자, 로마의 주교가 함께하는 여정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자문에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노드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특별한 지향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교구에서 먼저 하느님 백성의 자문을 모으는 과정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 과정은 교구 내 평신도, 수도자, 사도직 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은 물론, 그동안 교회가 무관심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하느님의 백성과 시노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거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변화는 젊은이, 신앙, 성소적 식별을 다룬 제15차 시노드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과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시노드에 참석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시노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6차 시노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교구별 준비단계에서 여러분이 속한 각 성당에서 단체별, 모임별로도 시노드 준비 모임을 할 예정이니만큼, 여러분 각자가 이번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에 동참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노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직장에 평신도가 그저 손님으로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 백성 전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곧 하느님 백성이고, 종말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 전체 신자들이 함께 걸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시노드에서 전체 신자들이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이 '동반하며 걸어나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노드(*synodos*)라는 말 자체가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노드 개막 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각계각층의 교우들과 함께,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교우의 휠체어를 밀어 드리면서 입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이 시노드 정신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 시노드 정신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노드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가 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도 주변 사

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교회의 현재 상태가 오히려 위기라고 이해하시며, 교회가 중산층화되어 가난한 이들이 떠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직주의를 멀리하며, 전 지구적 감염병으로 더 심해진 인격적 관계 단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죠. 이번 시노드가 이러한 경청과 식별을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에 '참여'하며, 친교를 나누고, '선교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한편, 신임 교구장님께서도 시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교우들의 관심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께서서는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함께 걸어나는 여정으로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 '시노드의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찾아(성찰해) 보고 함께 걸어갈(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민 여러분도 함께 기도, 참여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서울주보는 앞으로 매달 시노드 진행 현황을 비롯하여 시노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는 코너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노드와 더불어, 서울주보의 시노드 관련 기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리문고답하기 원고는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www.synod.or.kr) 자료를 참고하여 집필되었으며, 시노드 교구 실무자이신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양주열 베드로 신부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1월 접수시점~30일까지 / 문의: 010-8874-7970

국악성가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때: 2022년 5월9일~23일(14박15일) / 인솔: 강수근 신부
 곳: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메추고리에
 문의: 010-2279-0255 국악성가연구소

성결콜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신자
 때, 곳: 11월7일(일) 14시~17시, 비대면
 문의: 010-3817-0567(columban.or.kr)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피정: 11월20일~22일, 11월26일~28일, 12월3일~5일, 12월11일~13일, 12월30일~2022년 1월2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말씀 피정	11월26일(금)~28일(일)	곳: 도미니코 피정의집(주최, 황성)
성경 완독	12월3일(금)~11일(토)	
송년 피정	12월29일(수)~31일(금)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6차	12월3일(금)~11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11일(토)~12일(일)
3박4일	11월25일(목)~28일(일), 12월16일(목)~19일(일)
8박9일	11월9일(화)~17일(수), 12월26일(일)~2022년 1월3일(월)
40일	12월20일(월)~2022년 1월28일(금), 3월10일(목)~4월18일(월)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하반기)

12월 주제: 프란치스코 교황 문헌 / 강사: 박동호 신부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선착순 접수) / 문의: 02)3147-2402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

때: 2022년 1월~12월 (일) 16시~18시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Zoom도 가능
 지도: 프란치스코회(주최) 김성태 신부
 회비: 3개월 10만원 / 문의: 010-4598-6912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온라인 유튜브 개강

때: 2022년 1월25일(화) 오후 2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 백신 접종 가능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1월8일~22일 / 입학문의: 054)851-3021(http://www.csj.ac.kr) 교무입학처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2022년 전기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석사학위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11월1일(월)~15일(월) / 면접: 11월26일(금)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돈보스코미디어스쿨 2021년 후기 신입생 모집

과정: 중·고등과정(14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양천구 신월3동 살레시오투미래교육원

천주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강사 양성 교육(온라인 교육)

대상: 25명(상담교육사회복지유아교육 관련 전공자 우선)
 때: 11월17일(수)·18일(목)·19일(금) 10시~18시 예정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천주교 스마트습 문화운동본부(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 11월15일(월)까지 접수
 회비: 1만원 / 문의: 010-3262-6823(as621010@naver.com)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15일(월)~25일(목)~전형일
 12월11일(토)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2022년 1월18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계 3년 넘은 전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모집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단 모집

대상: 중1~고1 남녀 학생(2021년 초 6학년 포함)
 내용: 리더십양성을 위한 봉사활동(비대면 포함)
 문의(접수): 010-6880-9605, 02)926-3440 성빈센트청소년회 / 홈페이지(www.stvin.or.kr) 참조

미사

故 차동엽(노르베르트) 신부 선종 2주기 추모 미사

때, 곳: 11월12일(금) 오후 2시, 백석 하늘의문 성직자 묘원 /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인사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황성) / 개인, 자체취사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 심리·가족갈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교메스영성상담소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가족상담, 부부상담, 심리상담, 전화상담(주1회) / 문의: 010-6355-9782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기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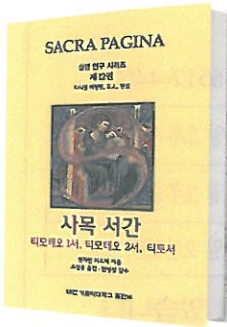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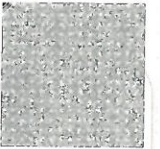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치료재활 여성반 신규 개설: 매주(수) 19시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소통과 관계훈련	11월24일~2022년 1월5일 매주(수) 오전 10시~오후 1시(7주)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사목상담	성경,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사목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사목 서간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벤자민 피오레 지음 | 대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428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사목 서간이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 최근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그럼에도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바오로의 죽음 후 20년 또는 그 이상, 후대의 관심사에 적용시키는 책들이다. 이 서간들이 '사목적'이라고 불리게 되는 특성의 새로운 진가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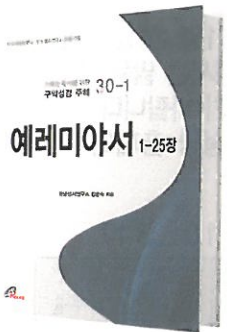


신간

가르멜 총서 38 영성 생활과 향주삼덕

아나스타시오 추기경 지음
기쁜소식 | 324쪽 | 2만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가르멜 수도회 사제였던 아나스타시오 추기경이 로마의 성 요셉 가르멜 수녀들에게 해 준 강의 내용을 엮은 것으로 영성 생활의 중요한 원리인 향주삼덕이 수도 생활, 더 나아가 가르멜의 삶이라는 맥락 안에서 잘 소개되어 있다.



신간

예레미야서 1-25장

김명숙 지음
바오로딸 | 500쪽 | 2만7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예레미야서 입문과 1-25장의 주해를 담고 있다. 입문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저자와 시대 배경, 신학 배경과 문학적·구조적 특징, 성경 전승들과의 관계, 중심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다. 1-25장 각 구절의 주해는 거룩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오페라

길 위의 천국 : 겸손과 희망의 만남

공연시간: 20일(14시-19시), 21일(17시)
입장료: R석 16만5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8만8천원, B석 5만5천원
문의: 010-9914-6253 티켓 담당자
전화예매 시 4명 50% 할인

최양업 토마스 사제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길 위의 천국> : 겸손과 희망의 만남이 11월 20일~21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다. 최양업 신부님이 전하려 했던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박영희의 음악을 통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길 바란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cpbc 라디오 가을 개편 신규 프로그램 및 연주회 안내

[라디오 신규 프로그램] 이기상의 뉴스 공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뉴스, 가톨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뉴스를 지향하는 '이기상의 뉴스공감'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를 가톨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며,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주는 소식으로 청취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리하는 '5시 브리핑', 화제의 뉴스를 소개하는 '뉴스초이스' 그리고 '오늘의 Pick'에서는 핫한 뉴스의 관련자를 초대해 가톨릭적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짜 뉴스 vs 진짜 뉴스, 강미진의 평화 공감, 친절한 경제씨, 세상 속으로, 사제의 눈 등 요일별 코너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연출 박종인 PD, 맹현균·김정아 기자 | 진행 이기상 | (월~금) 오후 5시~6시

[연주회] 제21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코로나19로 힘든 연습 시간을 보내온 cpbc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가을의 끝자락에서 스물한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위령 성월에 개최하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순교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신 모든 신자분들을 위해 연주합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티켓 판매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 채널(생방송)과 cpbc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 11월 12일(금) 오후 8시

장소 |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제2202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는 11월 28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11월 3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11월 7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세례 : 11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빈첸시오회 기금마련을 위해 좋은 재료로 알타리김치를 직접 담구어 판매합니다.

판매일시 : 11/7(주일) 07시, 09시, 11시 미사 후 현장판매

가격 : 30,000원 / 3kg

문의 : 이기애 아녜스 (010-4772-9253)

◎ 11월 13일(토) 오후 12시 혼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까지 성당 마당에 차량출입을 통제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 수험생 축복미사 : 11월 17일(수) 오후 7시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7분

사전접수 : 이향래 세실리아 (010-7752-4976)

회비 : 일만원

◎ 최양업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길 위의 천국'

공연일자 : 11월 20일(토) 오후 2시, 오후 7시

11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신자특전 : 2인이상 단체 50% 할인

티켓가격 : R석 165,000원 / S석 121,000원

A석 88,000원 / B석 55,000원

티켓담당자 : 박정민 (010-9914-6253)

◎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 청원 서명 운동 참여 요청

가톨릭기후행동이 연대하고 국제 '찬미받으소서 운동'이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 청원 서명 운동 안내를 드립니다. 이 청원 서명 운동에 교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청원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청원 서명 용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서명기간 : 10월 30일(토)~11월 14일(주일)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갱신 안내

- 지난 201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5년이 경과되어 금년(2021년)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본당에 교적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분들은, 올해 안으로 책정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21일(주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엑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희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0. 31)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1	846	1,355	45.2%	42.0%	38.4	36.9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0월 25일~31일)

누 계 921,368,861원

◎ 감사헌금 (10월 25일~31일)

박옥남 일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김미화 일십만원 박순자 이십만원

이지만 삼십만원 한인경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1주일)

교무금 14,564,000원

주일헌금 3,702,000원

리모델링 2차헌금 1,692,000원